



동안거 해제 전날인 3월 3일 총주 석종사 시민 선원에서 '자자'를 하고 있는 불자들. 금봉선 원장 해국 스님(맨 왼쪽)부터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고 참회했다.

### 석종사 시민선원 '자자(自恣)' 현장

## 스스로 허물 드러내 삼배로 참회

#### 벽력같은 고성 "왜 밥 갖다 먹어!"

"입승(立繩)이라는 중책을 맡았지만 잘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.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항상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."

"입승은 부처님 밥을 잘 따르고 스님도 한번 믿으면 철석 같이 믿는 등 참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랍입니다. 하지만 이번에는 혹독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. (잠시 후) 왜 밥을 갖다 먹어!"

벽력같은 소리가 일었다. 입순간 모든 것이 얼어붙었다. 숨조차 내 뱉을 수 없었다. 혼자 방에서 공양을 한 적 있었던 입승은 "참회합니다"란 말밖에 할 수 없었다. 총주 석종사 금봉선원장 해국 스님의 불호령은 이걸로 끝이 아니었다. 거사 청중(淸衆) 차례였다.

"청중 소임을 맡았지만 대중화합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. 그것에 대해 지적해 주십시오."

"지적할 정도가 아니라 쫓겨나야 돼. 어떻게 청중이 대중들 앞에서 언성 높이는 모습을 보여. 앞으로 세 철 동안 방부 못 들어. 걸망지고 가!"

해국 스님은 단호했다.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는 것 같았다. 서슬 퍼런 기운이 석종사 보월당(시민선원)에 가득 찼다.

"거사 청중과 보살 청중은 모두 큰 잘못과 참회해.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."

식발하던 날 고성을 지르며 싸웠던 두 청중이 대중들 앞에 삼배로 참회의 뜻을 보였다. 그러자 해국 스님의 얼굴도 조금 누그러지는 것 같았다.

#### "죄 놓았기에 죄에 자유스러워지는 것"

병술년 동안거 해제일 하루 전인 3월 3일, 석종사 시민선원에서 자자(自恣)가 열렸다. 자자란 안거(安居) 마지막 날 함께 안거를 보냈던 사람들끼리 안거 기간의 허물을 고백하고 잘못을 지적받는 의식이다. 해국 스님이 자자에 대해 설명부터

하기 시작했다. "자자란 즉 자기 스스로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 대중들에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."

해국 스님은 부처님 예를 들었다. 부처님이 해제하는 날 결제 때 남몰래 좌복 하나 더 쓴 입을 고백했다. 누군가 좌복에 물을 흘려 얼룩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제일 먼저 무릎 꿇고 자신의 죄를 참회했다. 그러자 가섭과 아나율 등이 나서 "그게 무슨 잘못이나"며 만류했다. 그러자 부처님은 "이런 사소한 잘못을 그냥 넘어간다면 큰 잘못도 넘어가 버린다"며 그들의 손을 뿌리쳤다. 그렇게 다음 순으로 내려가면서 자기의 허물을 내놓고 지적하며 참회했다.

"죄를 대중들에게 내놓았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스러워지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자자를 선방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한 번 해보세요. 단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때 자비심으로 해야지 감정이 개입되거나 악한 생각으로 한다면 자자를 망치게 됩니다."

#### "독하게 맺힌 것이 있어야..." 공부 독려

부처님 당시처럼 해국 스님이 먼저 자신의 허물을 참회하기 시작했다.

"첫 번째, 선원장으로서 결제중에 외부에 나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.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결제중에 나가는 것은 참회해야 합니다. 두 번째, 대중을 움직이기 위해 소리를 자주 질렀지만 그것은 규칙을 세우고 법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. 하지만 수행자가 남에게 열 올리는 모습으로 보였거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면 참회합니다. 세 번째, 아침에 참석하기로 했으면 지켜야 하는데 몸이 많이 힘들어서 빠진 적이 있습니다. 참회합니다. 이것 말고 선원장으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해 주십시오."

무거운 침묵이 흘렀다. 남의 허물을 듣기보다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는 것 같았다. 그 다음 순서로 내려갔다. "몸이 안 좋다는 이유로 정진을 몇 번 빼졌습니다. 참회 드

립니다. 또 포행 중 여러 신도님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. 이 점도 참회 드립니다. 이 이외에도 저에게 허물이 있다면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."

대부분 비슷한 유형이었다. 몸이 아파 몇 차례 정진을 빠뜨린 것에 대한 참회였다. 아침 공양 뒤 자주 잠을 청했던 한 스님도 해국 스님의 날카로운 지적을 피할 수 없었다.

잘못을 지적하는 것만은 아니었다. 공부를 독려하기도 했다. "독하게 맺힌 게 있어야 이를 수 있다"며 "맺힌 것을 채우도록" 재근했다. 또 "공부는 때로는 매몰처가 해야 한다"며 자신만의 길을 매몰처가 가도록 권유했다.

#### 해국 스님, 그릇 키우기 위해 악역 자처

해국 스님은 조각조각 난 죽비를 보여줬다. "나는 이걸로 때리지만 성철 스님이나 전강 스님은 불푸레 회초리 등으로 사정없이 때렸습니다."

해국 스님은 남에게 욕을 하면 인심 잃는 게 사실이지만 "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"고 말했다. 남에게 호되게 당하고 나면 그 사람 그릇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이다.

스님은 "남의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실력"이라며 수행자들의 욕 듣는 그릇을 키우기 위해 악역을 자처한다고 설명했다. 여기에는 불문에 들어 가장 큰 영향을 줬던 지월 스님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다.

해인사 유나 소임을 맡았던 지월 스님은 장군죽비로 정진하는 스님들의 자세를 교정해주곤 했다. 그러던 중 한 스님이 별뿔 일어나 지월 스님의 장군죽비를 분질러버리는 일이 발생했다. 어른 체면에 말이 아니었지만 지월 스님은 어디선가 장군죽비를 구해와 다시 지도에 나섰다. 이 모습을 본 해국 스님은 '이것이 어른의 모습이구나' 하고 감동을 받았다.

"요즘은 점검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점검받는 사람이 없다"는 해국 스님은 "안 받기 때문에 못해준다는 것은 곧 점검해 줄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적다는 말"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. 총주 석종사/글·사진=남동우 기자



해국 스님이 죽비를 들고 '자자'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.



자신의 허물을 돌아보는 불자들.



석종사 시민선원에서 정진중인 불자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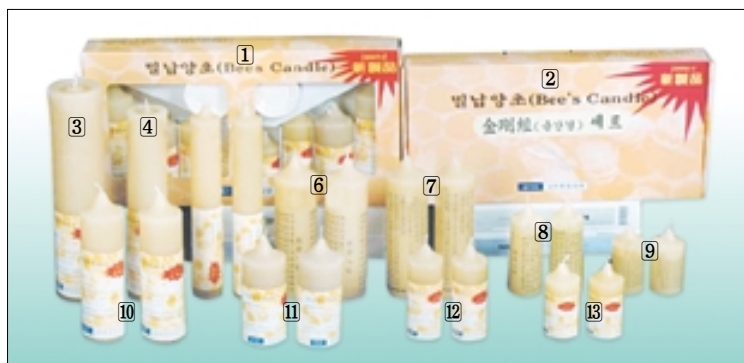
거사 청중이 대중들에게 삼배로 참회하고 있다.

## SHC 삼환종합양초

삼보귀의 하얗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. 꾸준한 **신상품**을 개발하여 **(실내용 양초=밀납양초, 약쑥양초, 식물성양초)**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.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
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 
 TEL 031)766-0242~3  
 FAX 031)766-0233  
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-16

##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!!!



#### ▶ 밀납양초(蜜蠟洋초)

- ① 밀납초(1-4호까지 8개入, 받침대 2개入)선물세트
- ② 밀납초금강경(7개入)선물세트
- ③ 밀납초원기둥 7.4φ × 30Cm
- ④ 밀납초돈타레 5.6φ × 27Cm
- ⑤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.9φ × 20Cm 연소시간 약 80시간 이상
- ⑥ 밀납초 1호 금강경 5.9φ × 20Cm 연소시간 약 80시간 이상
- ⑦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.7φ × 14Cm 연소시간 약 30시간 이상
- ⑧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.7φ × 10Cm 연소시간 약 24시간 이상
- ⑨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.7φ × 10Cm 연소시간 약 24시간 이상



#### ▶ 약쑥양초

- ① 원기둥 7.4φ × 30Cm
- ② 돈타레 5.6φ × 27Cm
- ③ 약쑥향 1호 5.9φ × 20Cm
- ④ 약쑥향 3호 4.7φ × 13Cm
- ⑤ 약쑥향 4호 4.7φ × 10Cm
- ⑥ 약쑥향 등초 3.1φ × 12.5Cm



#### ▶ 식물성 양초

- ① 식물성양초 원기둥 7.4φ × 29Cm
- ② 식물성양초 돈타레 5.6φ × 27Cm
- ③ 식물성양초 밀 대 4.6φ × 26Cm